

양돈장 전산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지난호(월간양돈 97년 7월호)에서는 기존의 양돈농장 전산관리 프로그램들이 현장농가의 시스템 수준과 정보처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내용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아 사용중인 농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농가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양관리는 물론 경영, 회계, 유통의 모든 영역을 관리, 분석, 진단,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종합적인 양돈농장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농가는 물론, 도드람 양돈조합의 전문인력 및 조합농가, 양돈지도사 등에 대한 충분한 현장 요구 조사후 시스템을 분석, 설계하여, 양돈농가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종합적 양돈생산 경영관리 프로그램인 PigPlan을 개발하였다.

또한 99년 7월부터 현장농가의

적응을 거쳐 이제 그 사용이 계속 확대 되어 제일제당, 도드람, 양주축협, 합천축협 등 단체들의 프로그램 활용이 늘고 있고, 사용중인 농가수도 제주도에서 강원도 철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400여 농가에 이르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끊임 없는 농가 방문을 통하여 현장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유지하며, 현장농가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있는데서 비롯되어 진다고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돌아다니며 파악하고 느낀 양돈농장 전산화에 대한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 간단히 PigPlan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돈농장의 전산관리는 목전에 와 있다

PigPlan을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가를 돌아 다니면서 나와 연구원들은 먼저 양돈농가들의 전산정보화 및 기록관리의 열망



최영찬 부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 뜨겁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다. 프로그램 강연을 할 때마다 젊은 양돈인은 물론 연로한 양돈인들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장 전산관리에 대한 절실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양돈협회 주최로 강연을 할 때는 회원들의 절반 가량이 참석을 하고 그중 절반 정도는 당장에 전산화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생각들을 피력해 주었다.

더욱 놀란 것은 일부 농가들(모돈 규모로 200두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꺼려오던 회계관리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몇몇 농가들은 세금보고서 기능은 물론, 정액법과 정률법의 감가상각 계산을 모두 요구하여 나를 당황스럽게 하였다.

또 양돈인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기초능력이 아주 높아 다른 축종은 물론 농업의 다른 작목분야 어디에서도 양돈인들만큼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높은 분야는 없다.

이는 우리 연구실이 개발한 다른 작목의 프로그램들을 교육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점이다.

양돈 만큼 공장화된 생산체계에 복잡한 생산관리를 가지고 있는 작목은 농업분야에는 존재하지를 않고, 타 산업의 회사관리도 이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놀랄만하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일반 회사의 관리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실지로 웬만한 회사는 양돈장 만큼 복잡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돈장 전산관리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 점을 유의

하여 시스템 자체는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튼 양돈 농가들의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이 높다는 것은 양돈장 전산화를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양돈인들의 노력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배우고 적응하려고 하는 도전정신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많은 양돈컨설턴트들은 아직 우리 양돈농가들의 전산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드람처럼 원격관리 방식을 권하고 있다.

물론 전체 양돈농가들의 전산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양돈장들은 이렇게 하여서라도 전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도(正道)는 개인농

〈표1〉 전산 기록관리의 효과

생산지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도드람 전산 농가	도드람 전산 농가	도드람 전산 농가	도드람 전산 농가	도드람 전체	국내 전체	도드람 전산기록농가	도드람 전체	국내 전체	도드람 전산기록농가	도드람 전체	국내 전체
총모돈수(두)	1804	4202	8294	12398	-	810184	12492	43797	820000	14427	77518	848000
평균총산(두/모돈)	11	11.1	10.9	11	-	9-10	11	10.6	10.5	11.1	10.7	10.5
평균실산(두/모돈)	10.2	10.2	10.1	10.1	-	8.5-9.5	10.1	9.7	9.5	10.1	9.8	9.5
평균이유두수(두/모돈)	9.1	9.2	9.3	9.3	-	8-9	9.3	8.8	8.5	9.3	8.9	8.5
비생산일수(일/모돈)	50.7	51	55.5	54.5	-	70-80	47.6	60	68	46.1	59	68
포유일수(일/모돈)	25.4	24.5	22.6	21.9	-	28	20.8	24	26	20.4	24	26
모돈회전율	2.25	2.26	2.25	2.27	-	2	2.34	2.16	2.05	2.36	2.26	2.05
PSY	20.5	20.8	20.9	21.3	-	17	21.9	19	17.5	21.9	20.3	17.5

장 스스로 전산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장의 주간관리나 진단분석이 적기에 될 수가 있다.

우선은 자료의 입력만이라도 스스로 하고 정보를 읽는 법은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2 양돈 전산관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전산관리를 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산관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전산관리를 하지 않던 농가가 처음 전산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 대개는 10~20%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기록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1993년부터 수년간 전산관리를 하여온 도드람의 경우 일반 농장들에 비해 모든 생산지수에서 앞서가고 있다(표1).

도드람 농가중에서도 전산관리를 하는 농가가 전산관리를 하지 않는 농가보다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살펴보면, 전산프로그램 자체만으로 농가의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농장의 관리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전산시스템과 관리인의 능력이 결합하여 좋은 성적을 올

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전산농가의 성적이 많게는 20%정도 향상된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다.

3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야 한다

양돈장의 전산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농장주와 관리인들의 전산관리에 대한 태도와 자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좋은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선택이다. 많은 양돈 농장주들과 컨설턴트들이 양돈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전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 능력이 있는 농장주나 양돈 전문가들일수록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많은 애로사항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불만은 프로그램의 오류나 사용상의 문제점 등 기초적인 불만에서, 필요한 관리항목이나 정보가 산출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 등 다양했다.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라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컨설턴트나,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료회사나 컨설팅회사 등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중에는 자사의 상품(사료나 컨설팅 용역)을 팔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문외한인 세일즈맨들이 여타의 프로그램들을 무조건 도외시키고 자사의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고 열변을 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의 권유에 따라 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안다.

더욱이 이런 프로그램일수록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싫어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농가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고자 할 때 농가에서 힘들게 입력한 기존의 자료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 형태로 전환시켜주거나 혹은 DB구조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은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일까?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선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입력부담이 적고 입력을 주로 마우스로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프로그램이 좋다.

또한 농장에서 원하는 관리 사항이나 분석, 진단정보들을 다양하게 갖추어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양돈장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많이 산출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입력부담은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쓸데없이 복잡해져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프로그램중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용이 되고 있거나,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비교가 가능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비교를 하여 농가에서 프로그램을 고를 때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그동안 가장 많은 농가의 사용과 자료의 축적을 가지고 있던 도드람의 DataPig는 PigPlan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비교하는 미네소타대

학의 피그챔프, 퓨리나 사료의 돈컴,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양돈 종합관리, 서울대학교의 피그플랜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나 공개를 하지 않거나 현장 사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사용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입력 분량과 인터페이스에서 피그챔프와 양돈 종합관리는 돈컴과 PigPlan에 비해서 떨어진다.

양돈종합관리를 제외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현장은 유지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Windows환경인데

〈표2〉 양돈농가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비교

		피그챔프	돈컴21	양돈종합관리	PigPlan	DataPig
총출력분량		71	56	33	68	
생산 관리	모돈/웅돈	30	38	21	33	
	비육돈	11	6	1	5	
유통		11+9(사료)	5	0	13	
재무/회계		7	3	5	4	
기타		농장간비교 3	종합일보 1 예측 2 농장간비교 1	단순목록(돈사, 돈방, 백신목록 등) 6	농장진단·설계 2 출하예측 1 농장간비교 10	
부가기능(화일관리, 자료수정, 오류체크)		○	×	△	○	
운영체계		dos	windows95 이상	windows95 이상	windows95 이상	
인터페이스		△	○	△	○	
현장성		○	○	×	○	
입력편이성/분량		△	○	△	○	
참고사항		-돈군(그룹)·돈방별로 데이터관리가 가능한 대규모, 비육돈 관리위주 방식에 적합(보고서중 그룹별, 장소별 보고서 20개는 국내 양돈농가에서는 사용 불가능) -미국본사에 의존하는 취약점(농가의 요구수용 불가능)	-유통,재무,회계 기능 미약 -농장진단 및 설계기능 미약	-빈약한 보고서 -현장성이 없음 -개발중단		

비해 피그챔프는 DOS환경으로 인터페이스가 열악하고 사용시 손이 많이 간다는 점이 흠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피그챔프는 출력보고서가 71종이고 PigPlan은 68종으로 돈컴의 56종과 양돈종합관리의 33종에 비해 더 충실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중 피그챔프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 양돈농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보고서들을 많이 산출하고 있어 실제로는 출력보고서의 종류가 PigPlan보다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피그챔프의 장점인 비육돈관리 출력보고서들은 미국식의 대단위 농장에서 돈군별, 주령별 돈방관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겠지만, 우리농장들처럼 모돈관리 위주의 농장에는 사용시 프로그램이 복잡하다는 느낌만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그룹별, 장소별 보고서 20개는 국내 양돈농가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PigPlan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농장종합보고, 농장진단 및 설계 기능을 가지고 있어 농장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피그챔프의 경우 대단위 규모로 주령별 돈방을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사양관리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선진에서 자사의 계열화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SIVA, M1의 다산, 그리고 천하제일과 우성사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대전충남양돈조합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선택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사용하여야 한다

양돈농장들의 경우 대개는 한가지 이상씩 사용한 경험들이 있다. 이중 몇몇 농장주들은 시스템을 개발한 우리보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들의 견해는 대단히 유익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시 농장주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본 농장주 및 실무자들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지 못한 쓰라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애타고 목마르게 좋은 프로그램의 출현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가깝게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준 사료회사의 직원에게, 멀게는 개발자에게 직접 전화

를 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을 주문하여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없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 중 몇몇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면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대개 몇 년씩 걸려서 프로그램의 개선을 하여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일을 반복하여 왔고, 사용자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자료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양돈농가의 프로그램 사용이 부진한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되어 왔다.

대부분의 양돈전문가들은 개별 농장들이 농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격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으나, 개별 농가들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양돈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일반 양돈농가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한가지 선택하여 꾸준히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사용하여야 프로그램 사용이 정착되게 된다.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

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언젠가나 그렇듯이 프로그램 사용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입력한 이들 자료들을 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축종과 달리 양돈의 경우 생산기간이 1년 가까이 되어 (교배에서 출하까지) 농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산출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게 된다.

이 기간을 잘 넘기게 되면 농장의 전산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적이 좋지 않은 농가일수록 전산관리의 효과는 크다. 따라서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철저히 기록관리를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산관리의 초기에 있는 농장들이 농장의 운영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수록 기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5. 초기사용농가에는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초기자료 입력은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PigPlan의 경우 농

가에서 초기자료(농장정보, 재산상황, 번식돈 기록 등)를 입력하는데 모든 규모가 200두 농가의 경우 1일 정도가 필요하고, 500두 이상 농가의 경우 2일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도 농장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능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또 초기자료 입력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PigPlan의 경우 초기자료 입력양식을 농가에서 기재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전산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경우 직접 입력을 하여주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 초기에 농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서울대학, 경상대학, 충남대학, 전북대학등 4개 대학이 6개월 정도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농가에 대한 사용 교육과 입력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초기 6개월의 기간이 지나가면 대부분의 농가는 전산관리의 효용을 느끼게 되고 또 전산관리의 능력이 배양되어 꾸준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농가를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적절한 보조교재의 제

공이다. 현재 피그챔프와 돈컴에서는 흑백으로 인쇄된 사용자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 PigPlan에서는 컬러로 인쇄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그챔프와 PigPlan은 보고서 매뉴얼을 따로 제공하고 있어 양돈전문인력이나 컨설턴트들에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농가들이 꾸준히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의 사용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수용을 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전산관리 능력이 향상 될수록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내용도 다양해진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을 적기에 하지 않으면 이미 사용 중인 농가들의 관심도 떨어지게 된다. 피그챔프, 시바 등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선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사료회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산의 M1이나 PigPlan은 자체 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PigPlan은 20여명의 자체개발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대학의 지원인력을 갖춘 종합적인 지원체를 구축하여 국내 어느 농가에도 2주 이내에 방문요청을 접수,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용문의와 프로그램 다운로드의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PigPlan.snu.ac.kr), 그리고 4개대학의 지원팀에서 언제나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6. 프로그램 활용능력의 배양(교육, 컨설팅, 비교 및 사례연구,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

앞에서 지적한 대로 프로그램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산관리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산자료와 함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산정보를 분석하여 농장의 문제점을 진단,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

전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도 농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처리하는 능력은 농장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효과적인 농장관리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물론 개별적으로 컨설턴트 수준의 능력이 있는 농가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들 농가들도 사양관리 외의 전문분야별 교육을 수시로 받을 필요가 있다. 자료를 통한 정확한 관리정보, 그리고 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장의 능력 향상, 이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농장 전산관리의 목표이다.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때까지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농가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맺는말

그동안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다니면서 나 스스로가 많은 점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단언하건데 모든 100두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전산화하여야 한다. 평균적인 생산성을 가진 농가에서 전산관리를 하는 경우 생산성이 20%정도 향상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농가의 규모와 용도별로 특성화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생각이다. 예컨대 모든 규모 100두 이하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입력이 간단한 관리프로그램, 모든 규모 200두 이상농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 모든 규모 500두 이상의 기업형 농장의 관리프로그램, 종돈장 관리프로그램, 자돈만 생산하는 농가에 맞는 프로그램, 비육만 하는 농가에 맞는 프로그램, 일관생산 농가의 관리프로그램 등으로 다 변화해 나갈 생각이다.

우리 양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장의 전산화, 정보화는 필수요소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대에 농장의 전산능력 향상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생산자가 얻는 수익보다 유통마진이 높은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보더라도 생산자들이 주도하는 전자상거래로 대부분의 유통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려면 무엇보다도 농가가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료회사나 유통회사, 양돈관련 업체나 단체, 정부의 지원과 격려가 힘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농가의 관심 있는 격려와 질책을 바란다. **양돈**



본회는 돼지오제스키병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돼지오제스키병 발생 농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양돈농가들은 발생농장으로부터 돼지 구입을 금지하는 등 오제스키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양돈협회 -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농가 명단

축주명	농장명	주소	발생일	사육두수	발생두수
장병갑	백마농장	충북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99. 11. 4	1,500두	20두
김승묵	성진농장	충북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99. 11. 4	700	3
이재익	재성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보리1구	'99. 11. 10	858	16
오문환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99. 11. 27	206	12
조강호	청빈농장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99. 11. 27	638	20
김용욱	재람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나산리	'99. 12. 3	803	20
이명용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99. 12. 8	6	6
임을순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99. 12. 17	10	10
김정용	혜성농장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99. 12. 24	355	19
조규홍	백선농장	경기도 안성시 일산면 신흥리	'99. 12. 24	380	3
전양래	금실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	'00. 1. 6	760	32
남내철	창덕농장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00. 1. 22	584	10
최은범	부곡1농장	충남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	'00. 1. 22	1,630	39
최은범	부곡2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00. 1. 22	1,570	42
홍사손	대덕농장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00. 1. 27	4,850	167
이규용	연수농장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00. 1. 27	940	9
김해석		충남 당진군 합덕읍 회태리	'00. 1. 27	738	11
임진수	둘리농장	충북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00. 1. 31	451	51
허민희	대주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00. 2. 3	3,441	135
이호경	금암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나산리	'00. 2. 3	211	11
이제만	아람농장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00. 2. 3	2,750	21
이선우	황골농장	충남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	'00. 2. 3	1,077	7
안종국	유전자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00. 3. 4	10,000	300